중압감에 작업을 미루고

-설문원의 서평에 답함-

오 항 녕

이 글은 내가 번역한 『기록보존소의 기록관리(Managing Archives. 진리탐구, 2002)』 및 『자료관의 기록관리(Managing Records in Records Centre)』에 대한 설문원 박사의 서평(『기록학연구』6)에 대한 답이다. 평자가 몇가지 지적한 것이 있으므로 작업을 한 나로서는 답변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미 다른 동료들도 이 책을 이용하고 있으므로, 역자가 답을 해야 정확한 이용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글이 길어질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궁극적으로 ICA와 IRMT의 원저자가 책임질 문제를 내가 방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실제로 평자가 원저자에게 지적한 대목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잠깐만 언급하고 번역서에 대한 평자의 지적으로 넘어가기로 한다.

원저에 대하여 평자가 제기한 문제 중의 하나가 수작업 시스템 위주의 설명이라는 것이다. 평자가 서평을 하면서 단 유예와 단서조항에 걸리는 것은 제외하고, 사실의 측면만 짚고 가기로 한다. 평자는 수작업 색인시스템이 80년대에 자취를 감추어 도서관에서는 물론 자료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는데,([서평]p.319) 분명 도서관에 대한 설명으로는 맞는 듯하다. 그런데, 자료관은? 필자의 경험으로는 '수작업 색인 시스템조차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자료관이 기록관리법령에서 말하는 그 자료관이라면 말이다. 자칫 평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우리 사회 기록관리 수준의 낙후성을 '은폐'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되어 확인해둔다.

역시 평자가 교과서라는 점을 감안하고 서술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평자의 지적처럼 이 책이 국제표준기술규칙인 ISAD(G)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은([서평]p.320) 것은 아니다. 제2과, 4.기술의 원리에서도 그 일반원칙을 설명하고 있고,(역서, p.93) 기술칼럼을 다룰 때도(역서, p105) 근거로

언급하고 있다. 아무려면, ISAAR(CPF)를 인용하면서 ISAD(G)를 생각하지 않았을 리가 있는가.

문제는 이렇게 되어야할 듯하다. 원저에 예로 든 기술의 사례 중에서 좀더 명료하게 ISAD(G)를 모델로 작성한 예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 원저자들이 기술의 사례를 들 때, 미리 작성된 것, 즉 ISAD(G) 개발이전에 작성된 기술에서 뽑다보니 그렇게 된 모양인데, 역시 학습자의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원저에 대한 역자로서의 변호는 이 정도로 하자. 평자가 지적한 번역의 문제로 가보자. 이제부터는 사실 변호할 말이 별로 없다.

우선 대역어 선택에 대해서는 평자와 고민의 궤를 같이하고 있다. 나 자신의 어휘력이 더 문제겠지만, 어떨 때는 우리말 어휘 부족을 탓하기도 한다. 허나, 탓만 하고 있다가는 아무 것도 못하니까 갈 수밖에 없다. 이를테면, 'Records Centre'의 번역어를 놓고 편집회의에서 설왕설래했는데, 요즘 나는 역시 자료관보다 그냥 음차하여 레코드센터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고 생각한다. 'Computer'를 그냥 컴퓨터라고 하듯이. 좀더 두고 논의하기로 하자.

'Authority Control'의 번역어를 두고도 고민이 많았다. 평자말대로 이미 문헌정보학계에서 '전거제어' 또는 '전거통제'라는 용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잘 머릿속에 들어오질 않아서 고심 끝에 선택한 번역어였다. 역시 '전거'라는 번역은 어떤 식으로든 바꾸어야겠다, 의미로 보면 그 색인 시스템에서 '정식으로 채택한, 또는 공식으로 사용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지만 '공식으로 인정한 용어'라고 하면 시소러스(Thesaurus)와 혼돈이 있고…. 그러다가, 본서에서 'Authority lists of corporate names', 또는 'Authority lists of place names'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다면 이 맥락에서는 '용어인증'이란 말을 써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던 것이다. 즉, '기업 이름에 관한', '지역 이름에 대한'이라는 한정어가 있으므로 '용어인증', 또는 '인증용어'라는 번역이 가능했던 것이다. 관례의 힘을 부정하진 않지만, 학문이란 늘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학계의 용법을 문맥에 맞추어 재구성해본 것이다.

다음으로, 'see reference'와 'see also reference'가 전문용어인지 내가 몰랐던 것은 사실이다. 사전이나 도서관에서 많이 보던 표현이었기에 경험적으로 번역한 것이다. 말은 통하면 된다고 보면 변호가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좀더 조사를 해야했다는 점은 분명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평자가 나의 오역으로 지적한 곳이 있다.(p.322 및 각주10) 내가 무슨 대단한 자신감을 가진 것은 아니고, 나는 이 때의 'file'을 진행파일로 이해하였다. 늘 사용하였으므로. 즉, 파일을 사안이 끝난 뒤에 하는 '편철'로 이해하지 않고 업무 중의 파일 관리로 생각했던 것이다. 이상해서,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수(高手)에게 자문을 받았던 바, 고수에게서 내 해석에 대한 인가(認可)를 얻고 난 뒤 '자신 있게' '각주를 통해서까지' 밝힌 것이었다. 그런데, 평자의 지적과 재해석을 보고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지금은 평자의 해석에 90%이상 기울게 되었다. 아직 이메일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 원저 집필자인 그리핀(A. Griffin)에게서 진의를 확인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겠다. 100% 답안을.

평자가 말한 역주의 문제는 나도 제안으로 답하겠다. 원래 이 교재 시리즈는 각주가 없다. 그런데 편집회의에서도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역주를 달 것인지, 단다면 어떤 형식을 갖출 것인지 지침이 없었다. 다만, 나는 필요하다싶어 자의적으로 역주를 선정하여 단 데 불과하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역자들의 설명은 범례를 통해서 밝히든지, 각주에 밝히든지 해서 형식을 통일하면 좋을 듯하다.

두 가지만 더. 평자가 눈감아준 곳이 몇 군데 더 있다. 곧 모아서 역시 적절한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알리고 고치도록 하겠다. 물론 많지는 않다. 아니, 많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아직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어서 미루고 있다. 양해바란다.

마지막으로, 왜 이 답변의 제목을 '중압감에 작업을 미루고'라고 달았는지. 이 서평 덕분에(말그대로!) 하고 있던 한 작업을 늦추었다. 마찬가지 번역서 상재(上梓)이다. 아, 적당히 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다. 시간이 좀 걸려도 할 수 있는 한 정확한 번역과 풍부한 주석을 단 번역서를 내야겠다는 '중압감' 때문이다. 양날의 칼이다. 게으른 자에게는 더없는 핑계니까.

새삼 학문의 축적은 이런 것인가보다 … 하는 느낌이 든다. 서평이 긴 것도 아니었고, 그에 대한 답신은 더 짧다. 그러나 내가 이번 의사소통을 통하여 추스린 긴장은 결코 작지 않다. 내가 느끼는 고마움이 평자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